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Public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 of Korea	보 도 자 료	KPIPA 책을 만들고 나누고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해

보도일자	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자	2026. 5. 15.(금)	배포	대외협력팀 이민주 대리 063-219-2746/ minju@kpipa.or.kr
첨부파일	인생독서X인생서점 홍보 포스터	담당	도서유통선진화팀 김다온 주임 063-219-2784/daonoad@kpipa.or.kr

서점에서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독서 여행
‘인생독서×인생서점’ 본격 시동

- 지역서점 200곳 선정… 5월부터 2,000여 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
-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독서 활동 지원

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(원장 김승수, 이하 출판진흥원)은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최휘영, 이하 문체부), (사)한국서점조합연합회(회장 오명영, 이하 한국서련)와 함께 2026년 ‘인생독서×인생서점’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 200곳을 최종 선정하고,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.

□ 지난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서점이 참여했으며, 프로그램 기획의 독창성과 다양성, 지역별 신청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서점을 선정하였다. 지역별 선정 현황은 ▲서울 45곳 ▲경기·인천 62곳 ▲강원 3곳 ▲충청 18곳 ▲전라 19곳 ▲경상 43곳 ▲제주 10곳이다. 전국 곳곳의 지역 서점이 참여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선정된 200곳의 지역서점에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2,000개 이상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.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▲경기 ‘이야호우북스’의 어린이를 위한 「동경아, 너 꼬리 어디있어?」 그림책 속 주인공 인형 만들기 ▲경상 ‘여행자의 책’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‘고등학생이

다시 쓰는 쇳밥일지’(대구일마이스터고 참여) ▲충북 ‘문화 잇다’ 서점의 성인을 위한 ‘해금과 첼로가 있는 음악이 있는 책 수다’ ▲전남 ‘한길서림’의 시니어 대상 ‘나도 작가-시쓰기: 실전 창작 기초 강의’ 등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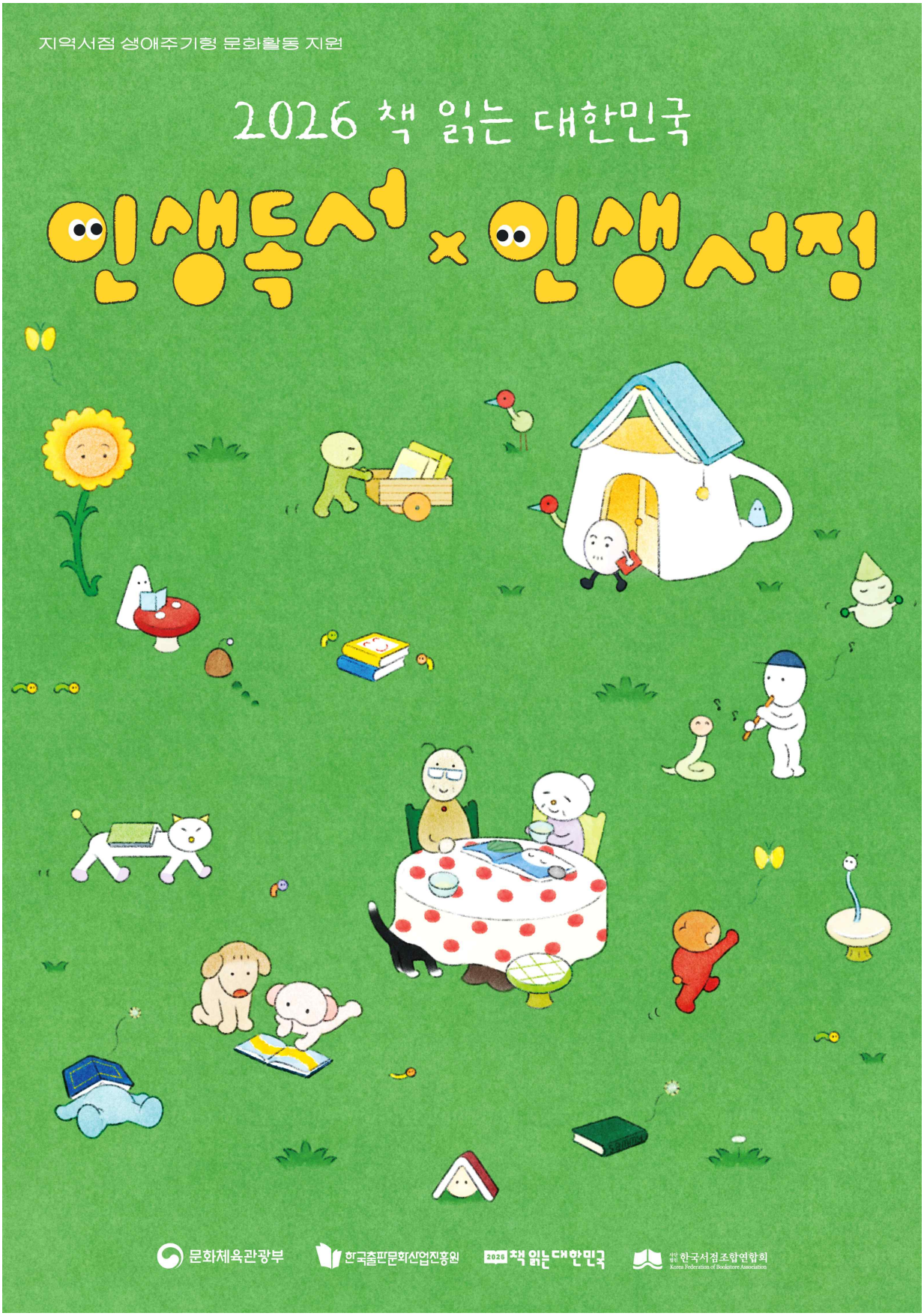
□ 지역서점을 중심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도 마련된다. ▲경기 양평 ‘북매터스’는 옥천초등학교 ▲경남 밀양 ‘청학서림’은 밀양소통협력센터 ▲경북 ‘참새책방’은 왜관시장 상인회 ▲전남 영광 ‘한길서림’은 영광시니어클럽 ▲전북 전주 ‘호남문고’는 국민연금공단 ▲제주 ‘보배책방’은 애월중학교 ▲강원 ‘강다방 이야기 공장’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업해 지역민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.

□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“지역서점은 출판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문화기반 시설이자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독서 문화 거점”이라며 “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서점이 다시 활력을 찾고 지속 가능한 독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□ 각 지역서점의 세부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은 서점 통합정보시스템 ‘서점ON’(www.bookshop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【첨부자료】인생독서X인생서점 홍보 포스터 1부. 끝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유통선진화팀 김다온 주임(☎ 063-219-27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인생독서X인생서점 홍보 포스터**